

2015년 5월 11일 오늘의 아침편지

왜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누릴까  
何故悪者は栄えるのか

정말  
本当に

못된 사람들도  
間違った人も

큰 선물을 받곤 한다.  
大きな贈り物を受けたりする

그래서 어쩐단 말인가?  
だから、どうしたの言うのか?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번영을 누리고  
我々は悪者が、むしろ栄えて

있다고 매일 불평한다. 폭풍우가 사악한 주인의  
いると、毎日不平を言う。暴風雨が悪い主人の

농장은 지나쳐버리고, 가장 선량한 사람의  
農場を見逃して、一番善良な人の

작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作物を台無しにしてしまう場合がしばしばある

-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베풍의 즐거움》 중에서 -  
- ルキウス・アンナエウス・セネカの〈施しの楽しさ〉より -

\* 그래요.  
\* そうです

그래서 어쩐다는 말입니까?  
だから、どうしたの言うのでしょうか?

다른 사람의 운명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他人の運命を咎め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그것은 하늘의 몫이고,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それは、神様の分け前で、その人の運命です

다만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ただ、私は私の人生の道を歩いていくのです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선량한 목표를 가지고  
私一人だけでも善良な目標をもって

걸어가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歩けば、世の中を救うことができます

악한 (惡漢)  
[명사] 惡漢; 悪人; 悪者; 凶人.

번영 (繁榮)

[명사] 繁榮; 栄え.

누리다<sup>1</sup>

[타동사] (富貴·長壽などを) うける; 享受する.

어찌다<sup>1</sup>

[자동사] [타동사]

‘어찌하다’ の略語.

( ‘어쩐’ の形で用いられて) ‘どんな·なんの’ の意.

폭풍우 (暴風雨)

[명사] 暴風雨; 嵐; 荒れ; 大荒れ; 吹き降り.

지나치다

[타동사]

(통과하다) 通り過ぎる.

(그냥 넘기다) やり過ごす; 見逃す.

망치다

[타동사] 台無しにする; 滅ぼす; だめにする.

2015년 5월 12일 오늘의 아침편지

외로움을 지켜주는 다리  
寂しさを守る橋

선물을 할 때는 인색하지 말자.  
贈り物をするとき、ケチをしないようにしよう

물건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物を惜しむなという意味ではなく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에 인색하지  
温かい心を伝えることにケチする

말라는 뜻이다. 선물은 사람들의  
なという意味だ。贈り物は人々の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心の中の深いところにある

외로움을 지켜주는  
寂しさを守る

다리다.  
橋だ

- 생텍쥐페리의 《사막의 도시》 중에서 -  
- サン＝テグジュペリ〈砂漠の都市〉より -

\* 이쪽과 저쪽을  
\* こちらも向こうも

가깝게 이어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近くに結ぶのが橋です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리가 필요합니다.  
人と人の間も橋が必要です

선물이라는 다리!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贈りものという橋。目に見える物事だけではなく

시간, 마음, 사랑, 꿈, 용서도 선물이 될 수 있고  
時間、心、愛、夢、許しも贈り物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橋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贈り物をやり取りする

유대감이 외로움을 지켜줍니다.  
連帯感が寂しさを守ります

외로움  
[명사] 孤独; さびしさ.  
인색 (吝嗇)  
[명사] 吝嗇; けち; しみったれ.  
유대감 連帯感

2015년 5월 13일 오늘의 아침편지

자기 마음부터 항복하라  
自分の心から降伏しろ

자신의 마음부터 항복하라.  
自分の心から降伏しろ

마귀를 항복시키려는 사람은  
悪魔を降伏させる人は

자신의 마음부터 굴복시켜야 한다.  
自分の心から屈服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면 모든 마귀는  
自分の心を屈服させれば、すべての悪魔は

물러간다. 폭력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退く。暴力をおさめる人は

먼저 자기의 기를 다스려야 한다.  
まず自分の気をおさめなければならない

자신의 기가 평화스러워지면  
自身の気が平和になれば

외부의 폭력은 침입하지  
外部の暴力は、侵入

못한다.  
出来ない

- 한용운의 《채근담》 중에서 -  
- ハン・ヨンウンの〈菜根譚〉より -

\* 세상 풍랑을 다스리기 전에  
\* 世の中の暴力をおさめる前に

내 마음의 풍랑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私の心の暴力をまずおさ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른 사람의 악한 마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의  
他人の悪い心のせいにする前に、私の中の

늑대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칭기스칸의 말입니다.  
オオカミから追い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ジンギスカンの言葉だ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니 칭기스칸이 되었다!”  
“私が私との戦いにかかったからジンギスカンになった”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自分との戦いから勝つ人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本当の勝利者です

마귀 (魔鬼)

[명사]

悪魔.

魔物の総称; 魔; 妖怪; 変化. [준말] 마(魔...

[기독교] サタン.

폭력 (暴力)

[명사] 暴力; 暴; 乱暴.

다스리다

[타동사]

治める; 統治する.

治める; しずめる.

治療する.

늑대

[명사][동물] チョウセンオオカミ(朝鮮狼); ヌクテ(똥 이름).

ヌクテ((한국어) 늑대) 발음 재생

[명사][동물] 늑대.

몰아내다

[타동사] 追い出す; 追い払う.

2015년 5월 14일 오늘의 아침편지

단골집  
なじみの店

다음 날도 나는  
次の日も私は

시내를 어슬렁거렸다.  
市内をうろついた

그러다 오모테산토 힐즈 맞은편에  
そして、表参道ヒルズの向かい側に

있는 한 가게를 찾아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ある、ある店を探して狭い路地に入った

단골집을 하나 갖고 싶었다. 피곤에 찌든 몸을  
なじみの店を一つ持ちたかった。疲れきった体を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담 없이  
引いて家に帰る途中に、気軽に

들러 수 있는 곳이 그리웠다. 언제나  
入ることができるところが懐かしかった。いつも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얘기를  
その場所で、黙々と私の話を

들어주는 곳.  
聞いてくれるところ

- 김진우의 《빌라 오사카, 단 한 번의 계절》 중에서 -  
- キム・ジヌ<ピラ大阪、ただ一度の季節>より -

\* 찻집이든 밥집이든  
\* 喫茶店でも、食堂でも

단골집 하나 있으면 참 좋습니다.  
行きつけが一つあれば、とても良いです

우선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가면 편합니다.  
まず信じていけます。行けば楽です

대화가 잘 됩니다. 아니 대화가 필요없습니다.  
対話がよくなります。いや、対話は必要ありません

눈빛만 봐도 압니다. 몸은 단골집에 가 있는데  
眼差しだけ見ればわかります。体は行きつけの店に行っているが

마음은 고향집에 와 있는 듯합니다.  
心は、故郷の家に来ているようです

몸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体と心が温かくなります

단골집

[명사] 行きつけの店; なじみの店; 常得意の家[店(み...]

어슬렁거리다

[자동사] [타동사] のそりのそりと歩き回る; ぶらつく; うろつく. (=어슬렁대다)

むかいのいえ [向いの家]

맞은편 집.

짜들다

[자동사]

(더러워지다) 古くなってよごれる; 垢[油]じみる; 染み付(...)

(여위다) (苦勞を重ねて) やつれる. [작은말] 짜들다.

(환경에) (悪い環境に) 汚される.

이끌다

[타동사]

導く.

(인도·인솔) 引く; 率いる; 手引く; 引き出す.

(지도·지휘) 教え示す; 指導する.

빌라 (villa)

[명사]

ビラ.

別荘(式住宅).

共同住宅や ‘연립 주택’ .

계절 (季節)

[명사] 季節; 時節; 時候; 時; 時季; シーズン.

차집 (茶一)

[명사] お茶屋. (=다방(茶房))

2015년 5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

밥 하는 것도 수행이다  
ご飯を炊くことも修行だ

“밥 하는 것도 다 수행입니다.  
”ご飯を炊くときも修行だ

밥 할 때는 밥만 생각하면 돼요.  
ご飯を炊くときは、ご飯だけ考えればよい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밥을 태우거나  
ほかの考えをすれば、ご飯を焦がしたり

뜸을 잘못 들이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  
蒸らしを間違っていました。私がする行動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쌀을  
そこに完全に心を注げばよい。米を

씻을 때, 쌀을 불릴 때, 물 양을 맞출 때,  
洗うとき、米をふやかすとき、水の量を合わせるとき

불 조절을 할 때 한 번에  
日の調節をするとき、1度に

하나씩 집중합니다.”  
1回ずつ集中します”

- 이창재의 《길 위에서》 중에서 -  
- イ・チャンジェの〈道の上で〉より -

\* 밥은 생명입니다.  
\* ご飯は生命です

밥은 모두의 건강입니다.  
ご飯は全ての健康です

밥은 반복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ご飯は繰り返される人生の原動力です

밥을 먹는 것은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ご飯を食べることは、飲食をしているのではなく

사랑과 감사와 정성을 먹는 것입니다.  
愛と感謝と真心を食べているのです

그래서 밥 하는 것도 큰 수행입니다.  
だから、ご飯を炊くことも大きな修行です

고도의 깊은 명상입니다.  
高度の深い瞑想です。

뜸3  
[명사] 蒸れること; 蒸らすこと; 蒸らし.

온전히

[부사] 完全に; 傷のないように; 全く; まともに.

文事に心を注ぐ 발음 재생

문사에 마음을 쏟다

불리다4

[타동사]

[ '불다' の使役]

(액체에 축여서) (水にひたして) ふやかす.

(재물을) 殖やす.

정성 (精誠)

[명사] 精誠; 真心; 丹念; 誠.

2015년 5월 16일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명지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ミョンジ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  
瞬間瞬間よく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

사람은 언제 어디서  
人は、いつどこで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야.  
もう一度会うようになるかわからない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지.  
瞬間瞬間よく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だ

C선배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서늘했어.  
C先輩の話を聞いて、ぞくっとした

살아오는 동안 어느 세월의 갈피에서 헤어진 사람을  
生きている間、ある歳月のページで別れた人と

어디선가 마주쳐 이름도 잊어버린 채  
どこかで会って、名前も忘れたまま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お互いをわかった時

그때 말이야.  
その時だ

나는 무엇으로 불릴까?  
私は何と呼ばれるのか?

그리고 너는?  
そしてお前は?

- 신경숙의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  
- シン・ギョンスクの〈月に聞かせたい話〉より -

\* 잠깐 스치듯 했는데도  
\* ちょっと通り過ぎるようにしたのに

금새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すぐにわかる人がいました

환한 미소가 예뻐던 '그녀', 활기가 넘치던 '그'.  
明るい微笑みが美しかった'彼女'。活気にあふれた'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그녀', 밝게 인사를 하던 '그'.  
私の話をよく聞いてくれた'彼女' 明るくあいさつした'彼'

20150516.txt

아무리 오래 지나 스치듯 만나도 몰라볼 덕이 없습니다.

いくら、永く過ぎてもすれ違うようにあっても、見間違えません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 '그',  
ともすれば、また会うこともできないが'彼女'、'彼'

제가 만난 그 모든 모든 사람에게  
私が会った、そのすべての人に

오늘도 좋은 기운만이 넘치길  
今日もいい氣運が溢れるのを

소망합니다.  
希望します

서늘하다

[형용사]

やや冷たい; 冷やかだ; 涼しい.

ひやりと寒気がする(동사적).

(눈 따위가) (ひとみなどが)澄んでいる.

잠깐

[명사][부사]しばらく; つかの間; 暫時; しばし[아어(雅語)]; ちよつと; ちよつ...

환하다

[형용사]

明るい.

広広としている; (前方が)ぱっと開けている; 見通(み...

(中身や織り目などが)透けて見える.